

콜롬비아 김정철 선교사

2022 년 선교사역 리뷰 및 2023 년 선교계획

안녕하세요. 2022 년은 짧지 않은 7 년간의 콜롬비아 농아 선교를 마무리하는 해였습니다. 낯설고 먼 곳 콜롬비아에 정상의 몸도 아닌 농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콜롬비아의 젊은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리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강도가 2 번이나 들어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갑자기 누적된 피로로 쓰러지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데린(콜롬비아)에서의 사역은 올 8 월에 마무리를 하였고, 졸업생들은 앞으로 메데린과 그 주변 지역의 농아선교를 위해 열심을 다할 것 입니다. 졸업생들과는 계속해서 zoom 등으로 연락하며 사역 방향이나 내용 등을 함께 나누고 follow up 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와서는 10 월 중순부터 11 월 초까지 라스베가스에 있는 농아인들의 요청으로 방문하여 농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농아교회가 없고 농아인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2 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교체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내에 농아인들의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23 년에는 남미 농아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1 월~3 월에는 브라질에 방문 할 계획이고 4~6 월은 우루과이에 방문 선교 예정입니다. 이후 볼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칠레 등의 농아인들과 연결이 되고 일정이 맞는 곳들 우선으로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미에 있는 농아인들과 연락하여 체류일정이나 선교활동 내용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2014 년, 2015 년 2 차례 베네수엘라 출신 농아인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났던 농아인들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중이며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는 라우데 자네이루에 농아교회 2 곳이 있지만 상파울로, 쿠리티바, 뽀르뚜 알레그리, 포르투 벨류, 브라질리아 등 주요 도시에는는 농아교회가 한곳도 없어서 농아인들의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농아인 설교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미 지역 상황도 비슷하여 남미 지역의 농아인들을 직접 만나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콜롬비아 (보고타, 메데린) 졸업생들 관리 및 사역 현황 등을 zoom 미팅을 통해 정기적으로 팔로업하고 격려 및 교육도 계속 할 것입니다.

언제나 늘 감사드립니다. 주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정철 선교사 드림